

연예 기획사 연습생 '노예계약' 제동

공정위, "투자 금액만 위약금 청구해야"… SM엔터 등 8곳 대상 계약서 심사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앞으로 계약 해지를 하더라도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투자한 금액만 위약금을 청구해야 한다.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 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손질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연습생 계약서는 연예 기획사들이 연예인 지망생들의 교육 및 관리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연습생 트레이닝계약서, 약정서, 연습생 규정서, 연습생 계약서 등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연예 기획사는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로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 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큐브 엔터테인먼트, 켈리퍼쉬엔터테인먼트, 디에스피미디어 등 8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약 해지 시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 투자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일률적으로 투자비용의 2~3배액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들이 계약해지 등으로 입는 손해는 교육비 및 관리비용 등 교육에 투자한 직접 투자비용과 관련기간 동안의 소정의 이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기획사들은 연습생 1인당 월 평균 148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이중 교육비용은 약 62%인 91만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

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 시키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도 손질한다.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습생 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연습생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느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외에도 불분명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소속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 금지 등을 연습생 의무로 정할 경우 연습생들의 의무이행 여부 입증에 어려움이 연습생에게 불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연습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약금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한 조항도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는 "시정내용을 각 기획사에 통보하고 향후 불공정약관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북체육회, 관리 실업팀 간담회 개최

전북도체육회는 7일 도체육회 관리 실업팀 지도자 및 선수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17 주요 대회 일정 및 전국종합체육대회 각종 변경사항과 지도자·선수 등록 일정 공지 등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 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작년 한 해 각종 종합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전북체육의 위상을 높인 것에 이어 올 해에도 좋은 성적으로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 절차 돌입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이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오는 14일 두 재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립허가 취소 후 재단의 재산은 법정 청산인이 관리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두 단체의 재산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

박혜진, 올 시즌 MVP... 윤덕주·3득점 등 5관왕 차지

우리은행 박혜진이 여자 프로농구 최고의 별로 선정됐다.

박혜진은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6~2017시즌 삼성생명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박혜진은 기지단 투표 99표 중 96표를 받으며 압도적인 표차로 MVP에 올랐다. 박혜진의 MVP 수상은 세 번째다. MVP를 3회 이상 수상한 선수는 정선민(7회), 정은순, 변연하(이상 3회)에 이어 박혜진이 네 번째다.

올 시즌 박혜진은 평균 13.5득점 5.7리바운드 5.1어시스트 1.54스틸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 부진을 겪었던 박혜진은 완벽한 부활을 알리며 팀의 정규 리그 5연패를 이끌었다. 박혜진은 이날 MVP를 비롯해 윤덕주상, 베스트5, 3득점상, 어시스트상 등 5관왕 자리에 올랐다.

박혜진은 "좋은 환경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신 구단과 프런트 모두에 감사하다"며 "세번째 수상이다. 지난 두 번의 수상까지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이 있어 힘들었지만 이번만큼은 이상의 무게를 이겨 내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역대 최고 승률로 정규 리그 5연패를 달성한 우리은행은 이날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다. 박혜진이 5관왕에 올랐고 존쿠엘 존스는 외국인선수상과 우수수비상, 베스트(센터)를 받으며 3관왕을 차지했다. 이밖에 임영희는 모범선수상을, 위성우

신인상은 KB 박지수가 차지

감독은 5년 연속 지도자상을 받았으며 우수 프런트상은 우리은행 정상훈 사무국장이 영예를 안았다.

신인상은 KB스타즈 센터 박지수가 차지했다.

박지수는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22경기에서 나와 경기당 10.4점, 10.3리바운드 2.8어시스트 2.22블록을 기록했다.

◇삼성생명 2016~2017시즌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 내역

- ▲ MVP= 박혜진(우리은행) ▲ 신인= 박지수(국민은행) ▲ 베스트 5= 강이슬(KB하나), 박혜진(우리은행), 김단비(신한은행), 엘리사 토마스(삼성생명), 존쿠엘 존스(우리은행) ▲ 지도= 위성우(우리은행) ▲ 외국인선수= 존쿠엘 존스(우리은행) ▲ 식스우먼= 최은실(우리은행) ▲ 기량발전= 최은실(우리은행) ▲ 윤덕주상= 박혜진(우리은행) ▲ 모범선수= 임영희(우리은행) ▲ 우수수비= 존쿠엘 존스(우리은행) ▲ 최우수심판= 안민숙(신한은행) ▲ 프론트= 우리은행 ▲ 득점= 김단비(신한은행) ▲ 리바운드= 김단비(신한은행) ▲ 어시스트= 박혜진(우리은행) ▲ 블록= 김단비(신한은행) ▲ 스틸= 김단비(신한은행) ▲ 3득점= 박혜진(우리은행) ▲ 3점아투= 박하나(삼성생명) ▲ 2점아투= 김한별(삼성생명) ▲ 자유투= 한채진(KDB생명)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3득점상을 수상한 우리은행 박혜진 선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상식 전 배포자료엔 '박혜진' 사회자는 '김연주' 호명

3득점상 수상자 '번복'

우리은행·삼성생명전서 박혜진 3득점 전날 경기 늦게 끝난 탓에 업데이트 못해 사회자 측에 잘못된 기록 전달돼

여자 프로농구 2016~2017시즌 삼성생명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수상자가 번복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WKBL은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정규리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득점상 수상자가 뒤바뀌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WKBL은 3득점 수상자로 신한은행 김연주를 호명했다. 하지만 실제 수상자는 우리은행 박혜진이었다.

시상식전에 배포한 자료에도 박혜진으로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사회자는 김연주를 호명했다. 김연주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시상식 무대로 올라갔다. WKBL 관계자는 곧바로 시상이 잘못됐다고 전했다. 수상자가 바뀐 이유는 WKBL의 실수였다.

당초 김연주는 3득점 64개를 기록하며 박혜진에 1개 앞섰지만 전날 열린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전에서 박혜진이 6개의 3득점을 성공시키며 순위가 뒤바뀌었다.

전날 경기가 늦게 끝난 탓에 WKBL에서 기록을 업데이트하지 못했고 사회자 측에 잘못된 기록이 전달됐다.

WKBL은 시상식 후반에 3득점상 수상을 다시 하며 박혜진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전달했지만 이미 앞질러진 물이었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